

SKC, 무보증사채 · 어음 신용등급 상향조정

한국기업평가는 9월28일 SKC의 무보증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BBB+, A3+에서 A-, A2-로, SK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A-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기평은 SKC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 주력사업의 실적개선 추세와 함께 저수익 사업부 분할로 전반적인 사업체질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기평에 따르면, SKC는 사업구조조정의 일단락으로 화학,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디스플레이소재 3개 부문으로 재편됐으며, 대부분의 제품이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SKC는 독점적인 시장지위와 계열사를 기반으로 화학부문에서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PET 필름의 고부가가치화, PDP 필터의 실적향상으로 영업채산성이 호전되는 추세이며, 적자사업부였던 모바일사업의 분할로 2006년 들어서는 현저히 개선된 영업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기평은 “범용필름의 경쟁심화, 디스플레이소재의 단가인하 압력은 수익성 개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PDP 필터 경쟁기업들이 확고한 Captive User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구도 면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다만, 가공필름 부문에서는 확고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노력은 부정적인 외부환경요인의 영향을 희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재의 PET 필름과 디스플레이소재 사업부문은 SKC의 초기 사업아이템이 환경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진화를 해 온 결과물로 현재까지의 연구개발성과를 감안하면 향후에도 안정적 수익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평은 SKC에 대해 재무안정성이 다소 미흡한 가운데 대규모 투자계획 및 현지법인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내재돼 있으나 사업체질 강화에 기반한 수익구조의 개선과 함께 금융비용 부담도 경감되면서 이익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화학저널 2006/10/02>